

유통·화장품 한 주 파악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인천공항, 내년 5월 국내 입국장 면세점 첫 개장...4월 사업자 선정(동아닷컴 2018.10.28)

내년 4월 운영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내용의 시간표를 제시.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금주 중 시작된다고 밝힘. 인천공항공사는 세관, 검역, 출입국 당국과 공동으로 올해 안에 면세점 관련 대책을 수립한 뒤 내년 4월 말 사업자 선정을 거쳐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시작. 인천공항공사는 사전 후보지 3곳을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만한 인천공항 내 유휴공간을 모두 재검토해 신규 면세점 용지를 찾음. 기존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는 인천국제공항 1, 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 근처의 3곳으로 규모는 1터미널에 190㎡ 2곳, 2터미널에 326㎡ 1곳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여객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 것"이라며 "범죄자 추적, 동식물 무단 반입 등 그 동안 제기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을 전함. 면세점 사업자는 2월 말 입찰을 시작해 4월 말 최종 선정함. 정부 방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원천 배제됨. 인천공항공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 선정 전 미리 면세점의 기본 인테리어를 완료하기로 입점 사업자들은 각자 매장 특성에 맞는 마감 인테리어만 하면 됨.

K뷰티에 꽃힌 사모펀드, 화장품 브랜드 투자 확대(파이낸셜뉴스 2018.10.28)

최근 국내외 사모펀드 등이 화장품 관련 업체에 잇따라 투자해 눈길을 끄.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의 돌풍과 시트 마스크팩의 꾸준한 인기 등 홈에스테틱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평가다. '불황에도 여성들의 지갑은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설명.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스틱벤처스는 K뷰티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투자 보폭을 넓힘. 스틱벤처스는 지난 6월 메디큐브(Medicube), 에이프릴스킨(Aprilskin) 등의 화장품 브랜드를 가진 에이피알에 30억원을 투자. 에이피알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높은 매출성장과 안정적 이익을 거둠. 최근에는 남성화장품 브랜드 포맨트(Forment)와 스트리트 패션브랜드 넬디(Nerdy)를 선보이며 제품 및 카테고리 다각화를 통한 사업확장을 추진 중. 에이피알은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을 준비 중. 스틱벤처스는 또 '이유리 쿠션'으로 알려진 엠에스코에도 프리IPO로 150억원을 투자함. 스틱벤처스 관계자는 "뷰티 업종이 소비재 가운데 한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중국 중심에서 수출 대상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여전히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설명함.

홈쇼핑업계, 겨울 앞두고 '프리미엄 브랜드' 확대 (뉴스토마토 2018.10.27)

홈쇼핑업계가 겨울시즌을 맞아 프리미엄 브랜드를 잇따라 론칭하며 고급화 전략을 꾀함. 특히 홈쇼핑업계에서는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패션 브랜드의 프리미엄화를 이끌고 있음. 현대홈쇼핑은 지난 18일 국내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중 하나인 '앤디앤뎀(ANDY&DEBB)'을 운영 중인 김석원·윤원정 부부 디자이너와 함께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A&D'를 론칭하고 첫 방송을 진행. GS홈쇼핑은 홈쇼핑 의류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트렌드리더 GS샵'을 가치로 내걸고 패션 부문에 적극 투자함. 특히 가심비를 앞세운 프리미엄 패션 상품으로 다양한 고객들의 눈높이를 충족킴. 지난 2012년 손정완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SJ와니'는 론칭 7주년을 맞아 럭셔리 라인업을 추가함. 럭셔리 프리미엄의 진수라 할 수 있는 밍크 트리밍 캐시미어 코트 등을 선보임. CJ ENM 오쇼핑부문은 고가 패션 브랜드의 직수입 확대를 추진하며, 지난 25일 올해 겨울 시즌 직수입 패션 브랜드로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밝힘. 오쇼핑부문 관계자는 "최근 홈쇼핑 패션이 프리미엄화 되면서 유명 브랜드들이 먼저 거래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다"고 전함.

'게이트 배기지'가 면세점 매출에 끼치는 영향은?(한국면세뉴스 18.10.26)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탑승객이 수하물을 탑승 게이트에서 비행기 화물칸에 싣는 이른바 '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면세점 업계와 공항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음. 이에 대해 국토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관계기관 회의에서 논의되고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금지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지 면밀히 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게이트 배기지가 금지되면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탑승객이 구매한 물품이 많을 경우 기내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에 영향이 불가피.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구매비중은 70% 정도이고 이 가운데

보따리상이 80%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이 비율을 적용하면 올해 18조원 매출에서 중국인 구매액이 12조6000억원, 보따리상 구매금액은 10조원 정도 되므로 수조원대 손해도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보따리상 구매제품이 비행기 수하물로 중국으로 가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인데, 한 면세점 관계자는 "대규모 보따리상 제품은 비행기 타고 안 간다고 보면 된다. 최근 중국 당국이 면세품 반입 단속을 시작하면서는 더 하다"라며 "대규모는 컨테이너에 실려서 홍콩같은 곳으로 가고 일부는 국내시장에도 유출된다"고 설명. 일부 보따리상 수요는 줄겠지만 수조원 규모 타격은 기우라는 얘기다. 다른 관계자는 "주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해 공항 인도장에서 받은 물품을 게이트 배기지한다. 때문에 타격이 있다면 시내면세점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공항은 비중이 낮아서 그나마 괜찮다"고 관측함.

백화점3사 실적 희비... 롯데·현대 활짝, 신세계 '우울' (사장경제신문 2018.10.26)

올해 백화점 3사의 3분기 실적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은 중국 사업 철수로 불확실성이 사라져 실적 반응 기대감이 큼.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사업 진출로 신성장을 얻음. 반면 신세계는 면세점 수익성 악화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됨. 롯데쇼핑 3분기 실적은 백화점 부문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 럭셔리와 가전의 호조로 인한 매출 상승과 판매비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의 영향. 더불어 중국 사업 철수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짐. 롯데쇼핑은 지난 8월 화북지역 21개 점포, 화동지역 53개 점포를 매각. 남은 점포들도 연내 모두 폐점할 계획. 국내 할인점 사업부는 신선식품 강화와 생활가전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19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임. 현대백화점도 면세사업 진출을 통한 신성장력 동력 확보로 올해 3분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상. 11월 말 천호점이 리뉴얼 완료로 그랜드 오픈하고, 지난 8월 말 김포 아울렛 리모델링에 따른 영업 면적 증가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 또한 유커들의 복귀와 면세사업 전망도 밝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롯데, 현대와 달리 신세계의 올해 3분기 전망은 우울.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을 따내며 반짝 반등했지만 결국 면세점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 면세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 DF의 수익성 악화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 백화점 부문은 성장했지만 결국 면세사업에서 발목을 잡혔다는 것이 업계 중론. 강남점, 인천공항점 초기 투자금 등으로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

대형마트, 생존 위해 단독 상품 늘리고 차별성 강조(뉴데일리경제 2018.10.24)

최근 부진한 실적을 거둬들이고 있는 대형마트가 생존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속도를 낸. 다양한 상품을 많이 진열하던 방식에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나 차별성을 강조한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형마트가 국내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8.4% 수준이었다. 당시 온라인 비중이 27.8%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대형마트의 영향력이 높았던 셈. 이마트의 경우 기존 형태의 대형마트 대신 특화 전문매장 육성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펼침. 실제로 이마트에서 새롭게 선보인 차별화 매장은 참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를 비롯해 가성비 중심의 노브랜드, 남성 가전 위주로 판매하는 일렉트로마트, 반려동물 전문샵 물리펫샵, B급 감성 중심의 만물상 빼에로썬 등 브랜드가 총 16여곳에 달함. 전문점의 숫자도 24일 기준 트레이더스 14개, 노브랜드 180개, 일렉트로마트 29개, 물리펫샵 35개 등 총 345개로 이마트 143개보다 2배 이상 많음. 특히 빼에로썬의 경우 지난 6월 코엑스에 1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9월 동대문에 2호점, 연말 전후 명동에 3호점을 오픈할 계획. 국내 핵심상권에 대형마트보다 작은 규모로 전문점을 오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이마트의 새로운 전략으로 볼 수 있음. 롯데마트 역시 지난 4월 '마켓D'를 선보이면서 가격우위형 점포를 표방하며 롯데마트 내 숍인숍(Shop-in Shop) 형태로 입점한 새로운 유형의 점포로 가격도 대형마트보다 약 10% 저렴함. 홈플러스도 새롭게 선보인 홈플러스 스페셜을 통해 상품 구성에 변화를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새롭게 문을 연 서울 1호점 목동점은 상품 수를 기존 2만2000여종에서 1만7000여종으로 줄임. 반면 홈플러스 스페셜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을 2400여종 늘리면서 차별화를 강조한 모습.

업종코멘트(10/29-11/2)

유통, 화장품: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5로 9월대비 0.7포인트 하락함. 여기에 국토부의 공항 출국장 내 게이트 배기지 금지 관련 기사로 유통,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KOSPI지수 이상의 하락세를 보임. 반면에 호텔신라의 3분기 면세점 실적은 매출액 33%(yoy), 영업이익 153%(yoy) 시현.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5.9%, 영업이익은 4.6% 상회하며 양호한 실적이 확인됨. LG생활건강 또한 럭셔리 부문이 국내와 해외를 중심으로 32%(중국 후 46% 성장) 고성장을 시현. 업종 전체적인 악재에도 업종 대표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견조한 상황.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종목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027.15	-5.99%	롯데쇼핑	-7.21	-0.99	-4.55	GS리테일	-5.90	-4.70	-2.72
KOSDAQ	663.07	-10.45%	현대백화점	-5.09	-3.63	-9.31	코웨이	-0.24	3.71	-2.21
유통업	380.07	-7.79%	신세계	-8.62	-14.02	-26.76	아모레퍼시픽	-3.67	-11.57	-26.31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7.86	-4.91	1.57	LG생활건강	2.60	-0.63	-9.28
KRW/USD	1,138.50	0.52	롯데하이마트	-4.82	-1.66	-13.18	코스맥스	-13.06	-17.38	-21.55
KRW/JPY	1,013.13	0.37	CJ오쇼핑	-6.50	-4.76	-11.20	한국콜마	-8.46	-11.59	-18.27
KRW/CNY	163.70	0.25	현대홈쇼핑	-2.16	-4.04	-9.68	토니모리	-17.36	-20.72	-37.87
			엔에스쇼핑	-7.92	-5.56	-10.53	잇츠스킨	-19.39	-19.15	-34.72
			GS홈쇼핑	2.56	-0.24	4.36	클리오	-14.84	-18.31	-34.33
			BGF리테일	-9.72	-10.86	-12.19	코스메카코리아	-9.88	-14.47	-24.44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2.4	-10.8	-21.2	노드스트롬	-0.9	-0.6	-14.7	텐센트	2.1	4.6	4.9
로레알	-1.4	2.5	-8.2	맥스&스펜서	0.5	-1.2	-2.2	알리바바	-0.3	-1.4	-12.3
에이본프로덕츠	-4.5	1.6	-13.6	다카시마야	3.5	0.0	1.9	JD닷컴	2.2	-0.9	-4.6
상해자화	-1.0	-6.2	-15.1	이온 물	0.7	-4.0	-0.2	VIP샵	-2.9	3.9	1.1
크리스찬디올	0.1	1.3	-10.5	세븐&홀딩스	-2.3	-4.6	-9.1	스타트투데이	-7.8	-9.8	-21.2
P&G	1.9	12.6	6.9	아마존	-2.6	-1.3	1.5	이베이	1.2	-1.8	-12.6
고세	-8.0	-17.0	-24.6	월마트	-1.6	-1.7	-6.3	메르카도리브레	-2.0	-7.7	-10.5
에스티로더	0.8	0.1	-10.8	테스코	1.0	-0.4	-9.8	라쿠텐	-4.9	-11.1	-23.9
LVMH	-0.9	-0.6	-14.7	타겟	2.1	4.6	4.9				
ULTA	0.5	-1.2	-2.2	까르푸	-0.3	-1.4	-12.3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현지통화)	6,765.00	188.60	1.90	24.76	329.60	89.00	16,130.00	126.41	260.90	272.24
시가총액(백만USD)	24,182	120,157	840	2,394	67,652	221,735	8,734	46,322	149,845	16,272
매출액 (백만USD)	2016 7,840 2017 8,964 2018 9,863 2019 10,672	27,578 29,400 30,531 32,139	5,718 5,716 5,548 5,407	890 953 1,075 1,281	43,721 49,330 54,100 57,769	65,058 66,832 66,834 68,820	2,468 2,738 2,991 3,193	11,824 13,683 14,320 15,250	41,617 48,167 53,333 57,329	4,855 5,885 6,707 7,555
영업이익 (백만USD)	2016 339 2017 717 2018 1,115 2019 1,321	4,342 5,079 5,587 5,976	322 273 335 327	37 54 97 128	7,874 9,263 N/A N/A	13,955 13,711 14,335 15,188	362 437 531 578	1,692 2,052 2,408 2,653	7,638 9,169 11,452 12,440	655 785 858 984
순이익 (백만USD)	2016 296 2017 203 2018 703 2019 855	3,438 4,046 4,587 4,893	-108 22 40 77	30 58 76 98	1,952 2,531 2,907 3,209	15,326 9,750 11,424 12,027	200 276 338 365	1,249 1,108 1,771 1,955	4,406 5,794 7,304 7,956	410 555 658 751
PER (배)	2016 36.8 2017 95.6 2018 34.7 2019 28.9	31.5 27.1 26.8 25.1	68.5 37.1 37.3 13.1	90.4 63.6 31.1 24.3	20.3 24.4 23.9 21.6	33.7 19.0 20.2 18.9	26.5 41.5 24.2 22.4	26.0 31.6 26.4 23.8	22.9 24.0 20.5 18.8	41.0 26.1 24.9 21.3
ROE (%)	2016 8.2 2017 5.6 2018 17.9 2019 19.4	12.9 14.5 15.1 15.1	N/A N/A N/A N/A	3.7 7.3 9.1 10.9	16.0 18.2 18.5 18.4	27.8 18.3 22.5 22.3	13.9 17.6 19.5 18.6	31.4 24.4 36.2 40.2	15.7 18.6 20.5 19.9	27.4 33.4 35.7 36.6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 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 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61.50	286.60	1,689.00	2,007.00	4,766.00	1,782.17	99.18	213.90	83.83
시가총액(백만USD)		10,367	5,965	2,683	4,080	37,755	869,238	290,472	26,835	44,124
매출액	2016	14,757	13,882	7,962	2,496	42,978	135,987	485,873	74,106	69,495
(백만USD)	2017	15,478	14,194	7,960	2,587	43,162	177,866	500,343	75,382	71,879
	2018	15,876	13,868	8,282	2,807	59,546	234,332	515,738	84,301	75,014
	2019	16,270	13,958	8,498	2,965	61,558	284,812	531,738	86,190	76,754
영업이익	2016	805	331	314	416	3,372	4,186	22,764	1,348	4,969
(백만USD)	2017	926	208	317	442	3,516	4,106	20,437	2,409	4,312
	2018	958	818	277	477	3,735	11,279	21,888	2,743	4,173
	2019	987	796	315	521	4,014	17,179	21,697	3,177	4,184
순이익	2016	354	153	193	264	895	2,371	13,643	-53	2,737
(백만USD)	2017	437	34	212	274	1,626	3,033	9,862	1,581	2,934
	2018	613	559	178	291	1,921	13,376	13,849	1,715	2,884
	2019	634	564	207	318	2,232	18,408	13,352	2,106	2,849
PER	2016	13.6	46.8	16.9	13.8	40.2	152.7	15.4	234.6	12.7
(배)	2017	16.9	168.9	16.1	16.7	21.8	256.6	24.1	16.9	15.5
	2018	17.1	10.9	14.9	14.0	19.9	66.3	20.8	15.4	15.4
	2019	16.3	10.9	12.8	12.9	17.0	49.2	21.1	12.8	14.9
ROE	2016	40.7	3.5	5.1	8.3	4.1	14.5	17.2	-0.5	22.9
(%)	2017	47.3	0.8	5.6	8.4	7.6	12.9	12.7	14.3	25.9
	2018	53.0	13.8	4.5	8.5	8.6	23.2	15.5	10.4	24.3
	2019	49.1	14.1	5.0	8.5	9.3	24.7	19.8	11.2	24.3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스타트 투데이	이베이	메르카도 리브레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6.62	260.00	144.60	22.56	4.81	2,747.00	28.06	297.59	739.80
시가총액(백만USD)		14,911	315,753	374,830	32,358	3,184	7,650	27,767	13,141	9,484
매출액	2016	87,189	22,880	23,531	38,895	8,522	706	8,979	844	7,209
(백만USD)	2017	92,207	35,223	37,825	53,678	10,802	888	9,567	1,398	8,424
	2018	88,928	45,950	56,933	67,164	12,445	1,216	10,774	1,461	9,618
	2019	90,587	60,976	79,353	83,270	14,365	1,605	11,563	2,002	10,850
영업이익	2016	2,190	7,971	7,145	-188	408	243	2,325	181	735
(백만USD)	2017	786	12,540	10,476	-124	399	295	2,265	56	1,342
	2018	2,158	14,552	10,494	-360	406	326	2,901	-58	1,201
	2019	2,381	17,868	16,137	139	525	436	3,090	46	953
순이익	2016	826	6,188	6,493	-573	307	158	7,266	136	354
(백만USD)	2017	-600	10,594	9,687	-23	289	182	-1,016	14	986
	2018	869	11,149	14,169	496	379	229	2,285	-16	759
	2019	1,043	14,630	18,965	1,146	447	306	2,384	44	575
PER	2016	21.6	38.7	47.1	N/A	22.2	45.1	18.1	47.5	42.5
(배)	2017	N/A	44.5	45.1	N/A	23.8	43.9	30.4	197.1	12.9
	2018	16.5	27.4	27.1	69.5	8.6	33.2	12.3	N/A	11.8
	2019	14.5	21.4	20.1	36.4	7.4	24.8	11.1	353.0	15.9
ROE	2016	7.4	27.9	17.6	-11.8	43.9	72.7	84.9	35.5	5.7
(%)	2017	-5.2	33.2	19.9	-0.4	19.5	57.4	-10.9	3.7	16.2
	2018	6.6	26.5	15.8	-0.5	13.9	65.1	30.6	-12.6	11.5
	2019	8.2	26.1	19.8	4.8	14.3	68.6	35.6	4.9	7.6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